지역 · 분야별 조직화로 활동 저변 넓힌다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창립 의미와 향후 과제

종단 포교단체 중 처음으로
교구별 포교조직 구성 눈길
10~20명 단위 세부팀 확대
종단 · 교구본사 유기적 관계
여성권익 · 사회 기여 체계화



조계종은 6월 23일 조계사 앞마당에서 '전국여성불자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사진=노덕현 기자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가 새롭게 창립하면서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일궈낼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특히 종단과 전국 교구본사 전폭적인 지원을 토대로, 교구별 · 지역별 세분화된 신도조직을 구성해 나가는 등 여성불자 네트워크 확대를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종단을 대표하는 포교단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6월 23일 창립한 전국여성불자회는 조계종 여성신도 조직으로, 각 지역과 직능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을 회원으로 한다. 특히 종단 포교단체 중에서도 처음으로 전국 교구별 포교조직을 구성, 전국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을 지도법사단으로 흡수하는 등 지역조직 활성화를 위한 확고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날 창립법회에서 교구본사주지협의회를 대표해 위촉장을 수여받은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초격 스님은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덕문 스님을 비롯한 모든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조직의 창립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포교를 위해서는 교구와 지역이 가장 중요함을 인식하고 종단 포교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교구별 포교조직을 구성키로 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스님은 특히 "그동안 여성불자들은 한국불교 포교현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해 왔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조직과 지원이 부족했다"고 아쉬움을 전한 데 이어,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미 전국여성불자회는 설립추진위원회 단계부터 교구본사별 각 2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각 교구별 · 분야별 30여명의 추진위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교구별 위원회는 10~20명을 기본단위로 팀을 구성해 점차 세부적인 지역조직 형태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교구별 대표 2인이 전국여성불자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지속적이고 평등한 소통구조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창립에 앞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조직구성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여성불자들의 역할에 관한 여러 제언들이 이어진 만큼, 포교원과 전국여성불자회는 이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반영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해 나갈 방침이다.

조계종 포교단체인 만큼 종단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종단 외호기구로서의 활동도 예상된다. 백만원력결집불사를 비롯한 종단 목적불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 각기 활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불교왜곡 · 편향 등에 대해서는 대정부 · 대사회적 활동을 통해 불교와 종단 외호에 나선다.

여성불자들의 권익 향상과 여성불자 인재 양성도 중요한 과제다. 전국여성불자회는 1180명의 발기인을 시작으로 전국 여성불자들을 발굴하며 조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역별 여성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대사회활동 및 교육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불교여성아카데미 등 상설교육기관의 설립도 점진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불자에 대한 인식개선은 물론, 활동역량 및 저변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이런 가운데 현재 활동 중인 불교여성단체들과의 관계정립 및 연대활동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불교여성개발원의 경우, 조계종 포교단체로 출범해 운영되다가 올해 포교단체 지정이 해제된 바 있다.

이후 불교여성개발원은 "앞으로 조계종 뿐 아니라 다른 종단을 아우르는 범불교단체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공표했지만, 상당수의 회원들이 조계종 신도라는 점에서 향후 화합과 연대를 위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한편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창립이 구체화된 것은 지난 2월 23일 경, 조계종이 설립취지문을 발표하고 1080발기인 모집을 시작하면서다. 이어 4월 12일 범해 스님을 위원장, 포교부장 선업 스님과 김의정 · 이연화 · 김혜성 여성불자를 부위원장으로 한 설립추진위원회가 창립됐고 수차례 회의와 설립 방향성 논의를 위한 공청회를 거쳐 이날 공식 창립했다. 창립 발기인은 1180명이다.

"여성불자 역량 응집, 이제 시작"



김의정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초대회장

김의정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초대회장〈사진〉은 "오늘 전국여성불자회 창립은 한국불교 1700년사에서 새로운 불교의 시작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며 "각자 처한 자리에서 묵묵히 정진해 온 여성불자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소임을 맡게 돼 무한한 영광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의정 초대회장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을 맡은 인물이다. 2005년부터 7년간 제23대 · 24대 중앙신도회장으로서 전법회관 건립 등 신도역량 결집에 큰 역할을 했다.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차문화 창달에 나서는 한편 조계사 신도회장으로 신도들의 활동을 묵묵히 지원해왔다.

김 회장은 이어 "전국 사찰과 지역에 여성불자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기와도, 연등도, 좌복도, 공양간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한국불교에서 여성불자들이 해온 이러한 역할에서 이제 마음을 모아 세상을 품고, 다양한 방면의 사회적 활동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여성불자회 창립에는 1180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김 회장은 이에 대해 "오늘 회원들의 참여가 씨앗이 되고 들불처럼 번져나가 세상의 화합과 상생을 이끌어가는 힘이 됐으면 한다"며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길 기대하며 모든 가정에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세계 비구니, 소통 · 연대로 발전과제 공유

전국비구니회, 6월 22일 좌담회

전국비구니회가 베트남, 티베트 등 세계 비구니 승가를 이끄는 비구니 스님들과 만나 세계 비구니승단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긴밀한 소통과 연대를 약속했다. 특히 출가자 감소 문제는 물론, 성평등 문제와 승단의 계승, 승단 내 세대간 격차 등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 비구니승단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돼 주목된다.

전국비구니회는 6월 22일 전국비구니회관 2층 회의실에서 '국제화시대 비구니 승가를 위한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좌담회는 지난 6월 17~18일 한마음선원이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세계 비구니승가, 현재와 미래' 세계 비구니 승가의 지도자들이 참석차 방한한 것을 계기로 성사됐다.

좌담회는 조은수 조은수 샤카디타 코리아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샤카디카 코리아 공동대표)과 미국 샌디에고대 종교학교 교수(前 샤카디다 인터내셔널 회장), 호치민시 베트남불교대학 불교영어학과장 류팝 스님(순나타 비구니사원 주지)가 참석했다. 또 운영위원장 상덕, 수석부회장 현정, 동국대 정각원장 진명, 사찰음식문화연구소장 선재,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과 비구니회 소임자 스님들, 독일 튀빙겐대학의 모니카 슈림프 교수도 함께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좌담회 시작에 앞서 "한국비구니승단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고민은 출가자 감소 문제"라며 "오늘 좌담회에서 이 문제를 공유하고 각국 비구니 승단과 연대하는 가운데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고 전했다.

쏘모 스님은 세계 비구니승단의 해결과제로 비구니 구족계를 비롯한 남녀 불평등 문제와 승단 내 세대간 격차 문제를 꼽았다. 쏘모 스님은 "최근 열린 한마음선원 학술대회에서 각국 비구니승단의 가장 업데이트된 현황을 토대로 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샤카디타와 함께 일해 온 지난 35년 동안, 모든 나라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상황이 모든 분야에서 발전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아직 갈길이 멀다. 여전히 어떤 국가에서는 비구니스님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열악하며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남녀 불평등 문제"라고 지적했다.

류팝 스님은 베트남 비구니계 수계의 어려움을 공유했다. 스님에 따르면 베트남 내에서 구족계 수계는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며, 때문에 팔계를 받은 사미니스님들은 대부분 비구스님들의 사찰에 머물며 비구스님의 생활을 돕는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다. 특히 이 스님들은 비구스님들이 남긴 음식물을 먹는데, 재가자들이 바치는 공양물은 승가를 위한 것이지만 구족계를 수계하지 않은 비구니 스님들은 승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스님들은 전세계 사미니 스님들이 각 비구니승단의 연대를 토대로, 국가의 한계를 넘어 세계 비구니승단에서 불교를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도 했다.

'국제화시대 비구니 승가' 주제
본각 · 쏘모 · 류팝 스님 등 참석
비구니승단 해결과제 중심 논의
2023년 샤카디타대회 기대감도

본각 스님은 "출가자 감소 문제를 고민하다보니 다른 국가의 비구니승단과 연대를 통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한국과 베트남, 티베트 등에서 공부하는 사미니 스님들이 다른 나라의 비구니승단에서 그 나라의 불교를 배우는 계기를 만든다면, 세계 비구니스가 발전을 위한 큰 흐름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2023년 전국비구니회와 샤카디타 한국지부가 주관하는 샤카디타 한국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전하기도 했다. 본각 스님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알고 있지만, 세계불교와 한국불교가 교류하는 중요한 자리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전국비구니회는 6월 22일 전국비구니회관 2층 회의실에서 '국제화시대 비구니 승가를 위한 좌담회'를 진행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코로나 이후 법회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일 정 2022년 8월 24일(수) ~ 26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육비 20만원(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 (8월 24일, 수)	2일차 (8월 25일, 목)	3일차 (8월 26일, 금)
09:00~12:00		수행과 포교의 연계성 '원리와 사례'	현대인을 위한 포교
14:00~17:00	현대적 생활 수행과 포교 방안	생활 속의 마음공부 '실천중심 방법론'	
18:30~20:30	불교 속의 과학 과학 속의 불교	뉴노멀 시대 온라인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